

전남도, 친환경농업직불금 185억원 '전국 최대'

총 1만9000ha·국비 110억원 규모 1만4천여 농가 평균 지급액 77만원 유기농 5년차·무농약 3년차는 100% 내년부터 금액 인상·상한 면적 확대

전남도가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185억원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2024년 친환경농업직불금 110억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75억원을 확정하고, 직불금 총 185억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이행

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저탄소농업 실현을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1만4000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다. 지급 면적은 약 1만9000ha로, 국비로 총 110억원을 지급한다.

전남도가 지급할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전국 총 210억원의 52% 규모에 해당하며,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77만원이다.

지급 면적은 농가당 0.1ha부터 5.0ha까지다. 인증단계별 ha당 지급단가는 논은 35만원에서 70만원까지, 과수는 7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채소·특작은 65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유기농 5년차까지, 무농약 3년차까지 100% 지원하지만 유기농 6년차부터는 50%, 무농약 4년차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이에 전남도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2015년부터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지원 자체 사업을 추진, 유기농은 6년차부터 50%를 더해 100%, 무

농약은 4년차부터 50%를 지원하고 있다.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지급 대상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 후 친환경(유기농·무농약) 지속 인증 농지로서 지급 면적은 약 1만5000ha로, 1만3000여 농가에 75억원을 지급한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각고의 노력으로 7년 만에 2025년부터 친환경직불금이 확대된다"며 "대한민국 유기농 1번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정부

예산 319억원으로 확대 반영되면서 전남은 올해 110억원 대비 73억원이 증액된 183억 원을 확보했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 세부 내용은 논 직불 단가를 ha당 유기는 70만원에서 95만원, 무농약은 50만원에서 75만원, 6년 차부터 지급되는 유기농지속직불금은 ha당 논은 35만원에서 57만원, 채소는 65만원에서 78만원, 과수는 70만원에서 84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급 상한 면적은 현행 5ha에서 30ha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광주시, '힌츠펬터보도상' 수상작 전시회 연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기념재단, 한국영상기자협회와 함께 '2024 힌츠펬터국제보도상 수상작 전시회 및 상영회'를 오는 12일부터 2025년 3월30일까지 각각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기획전시실과 영상실에서 개최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힌츠펬터국제보도상은 5·18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 고 위르겐 힌츠펬터(Jurgen Hinzpeter, 1937~2016)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내 최초의 국제보도상이다. 힌츠펬터국제보도상 공동조직위는 공모를 통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민주·인권·평화와 관련된 사건이나 이슈를 취재·보도한 영상물을 발굴하고, 실제적 진실을 확산하기 위해 수상자들과 연대해 왔다.

이번 기획전시는 올해 2024년 수상작 소개영상을 포함해 제정 첫해인 2021년부터 현재까지 국제보도상의 지난 4년간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대상인 '기रो에 선 세계상'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자지구 구급대원, 시민들의 고군분투와 함께 9살 어린 소녀의 눈으로 바라본 전쟁의 참상을 그린 '가자로부터 온 목소리(Voices from Gaza)'가 선정됐다.

또 폭격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자지구의 참혹한 현장을 보도한 '지금 가자에선(Inside the Gaza Siege)'이 뉴스상을 수상했으며, 이란 히잡 시위를 통해서 본 여성 인권탄압 현상과 그들의 아픔을 담은 '인사이드 이란: 자유를 위한 투쟁(Inside Iran: The Fight for Freedom)'이 특집상을 수상했다. 공로상인 오월광주상은 베트남 전쟁의 참혹성을 널리 알려 전쟁의 역사를 알리고 영상보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한 보수(Vo Suu), 고 딘 폭 레(the late Dinh Phuc Le), 고 알렌 다운스(the late Alan Downes)에게 돌아갔다. 노병하 기자



사랑의 선물주머니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들이 9일 광주 북구 매곡동 지사 앙리뒤낭홀에서 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생필품 등이 담긴 사랑의 선물주머니를 제작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전남도, 20년 이상 돼지열병 '청정 지역'

전남도는 철저한 양돈농장 검사와 체계적인 방역관리에 나선 결과 20년 이상 돼지열병(CSF) 비발생 상태를 유지, 돼지열병 청정지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돼지열병은 감염 시 치사율이 높아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되는 질병으로, 최근 경기, 강원, 경북에서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는 다른 질병이다.

검사 철저·체계적 방역 관리 성과 1134농가 97% 항체 양성률 확인

국내에서는 2016년 9월 경기도 연천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했으며, 전남은 화순에서 2003년 3월 발생 이후 철저한 양돈농장 모니터링 검사 및 체계적인 방역 관리로 지금까지 비발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장과 도축장으로 출하된 돼지를 대상으로 매년 백신 항체와 바이러스 항원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검사하고 있다.

올해는 1134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항체 2만806건을 검사했으며, 97%의 항체 양성률을 확인했다. 특히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80%) 미만인 16개 농가에 대해 백

신접종을 독려하고 추가 검사를 시행했으며, 관할 시군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819농가 9092건을 대상으로 진행한 바이러스 항원 검사에서는 모든 농가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백신 항체 검사는 돼지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바이러스 항원 검사는 돼지열병의 감염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다. 오지현 기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우리 모두의 목숨을 위협하는 범법행위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15점의 벌점 및 6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KOREAN | SGI서울보증 | 아나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신한E손해보험 | CHUBB Carrot | kakaopay insurance